



정읍시, ‘1기업 1담당제’ 기업 지원 교육 실시

정읍시가 지난 23일 연지아트홀에서 6급 이상 간부공무원 150여명을 대상으로 기업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1기업 1담당제’를 맡은 공무원의 현장 소통 능력과 전문성을 높여 기업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듣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1기업 1담당제’는 지역 기업과 팀장급 이상 공무원을 일 대일로 연결해 담당 공무원이 분기마다 기업 현장을 방문 하고 애로사항 해결과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강의는 전북경제통상진흥원 기업애로해소본부장이 맡았다. 교육은 담당 공무원의 역할과 기업 소통 기법, 기업 지원사업, 관계기관 협업 방안 등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내용으로 진행됐다. 특히 실제 기업의 애로사항과 해결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해 담당 공무원의 현장 대응력과 기업 맞춤형 지원 역량을 높였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교육이 담당 공무원들에게 기업의 든든한 행정 동반자라는 책임감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 정읍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 ‘1기업 1담당제’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신규 지원정책 발굴과 규제 혁신을 추진해 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경찰 흥덕파출소, 찾아가는 노소사기 예방활동

고창경찰서(서장 태기준) 흥덕파출소(소장 조휴신)가 각종 회의 및 상가를 방문하여 최근 발생한 신종피싱 사례 등을 설명하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흥덕파출소장은 지난 24일 흥덕면 주민행복센터에서 열린 이장단 회의와 면민나눔 행사장을 찾아 2025년과 2026년 고창지역에서 발생한 노쇼(No Show) 사기 발생 사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를 실시하였다.

특히, 고창군민들이 쉽게 접하는 ‘고창군청’을 사칭한 노쇼(No Show) 사기 비율이 2025년 30%에서 2026년 53%로 급증하였는바 고창군청 등 공공기관 사칭 계약, 구매 등 전화가 오면 관공서 홈페이지 등 공식번호로 확인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또한 흥덕파출소장은 거래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울 경우 ‘112’로 신고하여 경찰관의 확인 후 거래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만약에 이미 대금을 송금했거나 피해가 의심된다면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 24시간 운영하는 (1394)로 신고해 피해상당 및 관계기관 연계 조치 등 지원을 받아달라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북푸른학교, 글로벌 장애청소년 IT대회 석권

나지현 학생, 대상·금상 동시 수상 … 대한민국 대표로 세계무대 도전

전북푸른학교 학생들이 국내 최고 권위의 장애청소년 IT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비롯해 금상과 은상, 동상을 휩쓸며 전북 특수교육의 디지털 교육 역량을 입증했다.

전북푸른학교는 지난 15~16일 대전 라마다 바이 윈덤 호텔에서 열린 ‘2026 글로벌장애청소년 IT챌린지(GITC) 한국대회’에서 대상과 금상, 은상, 동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24일 밝혔다.



국제행사로 열리며 국제적 위상을 인정받았다.

LG와 보건복지부가 공동 주최하고 LG전자와 한국장애인재활협회가 주관한 이번 한국대회에는 전국에서 선발된 장애청소년 60명이 참가해 인공지능(AI) 활용 능력과 디지털 창의성, 문제 해결 역량을 겨뤘다.

이번 성과는 학생들의 꾸준한 노력과 자기주도적인 학습의 결실이라는 평가다. 학생들은 방과 후와 방학 기간에도 코딩과 AI 실습을 이어가며 반복되는 시행착오를 극복하고 실력을 키워왔다.

김태훈 지도교사는 “디지털 교육은 장애학생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충분한 교육 기회가 주어진다면 장애학생들도 더 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의미 있는 사례”라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농협 순창군지부, 다문화가정 아이들과 ‘농업의 가치 배워요’

농심천심 텃밭정원서 순창군가족센터와 수확체험

농협 순창군지부(지부장 신종철)는 지난 23일 순창군지부 ‘농심천심 텃밭정원’에서 순창군가족센터와 함께 다문화가정 초등학생들을 초청해 ‘농심천심 텃밭정원 수확체험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다문화가정 어린이들이 우리 농산물을 직접 수확하며 생명의 소중함과 농업의 가치를 배우고,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함께 소통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신종철 농협 순창군지부장을 비롯한 직원들과 문정현 순창군가족센터장 및 직원, 고창주부모임 회원, 다문화가정 초등학생 등 20여 명이 함께했다.

아이들은 텃밭정원에서 정성껏 자란 토마토, 참외, 오이, 가지, 파프리카 등을 직접 수확하며 흙의 감촉과 수확의 기쁨을 몸소 체험했다. 농협 순창군지부는 앞으로도 지역사회



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세대에게 농업의 소중함을 전하고, 모두가 함께하는 따뜻한 지역공동체 조성에 앞장설 계획이다. /순창=이왕일 기자

전주매일 www.jmaeil.com		2009년 11월 23일 등록(일간)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우)66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부사장 김양옥
•대표전화 288-9700 •업무국 FAX 288-9703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지사 010-9645-4113	중앙지사 010-9088-6874	남원지사 632-3996	임실지사 010-9642-2725
삼천지사 010-2333-4791	인후지사 246-6855	김제지사 545-1227	진안지사 433-3064
서신지사 272-9417	송천지사 255-2404	남원지사 632-0995	정읍지사 536-3787
호지지사 010-6645-9935	팔복지사 253-6844	순창지사 653-0444	장수지사 010-3682-6157
	군산지사 010-8829-6677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4172-3800
	익산지사 658-9923	고창지사 563-6999	
※구독료 : 월13,000원, 1부 500원 인쇄인 김은주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제7회 임실군 지회장배 한궁대회’ 성황리 개최

사)대한노인회 임실군지회(지회장 이강년)는 최근, 임실군노인종합복지관 2층 강당에서 한독수 임실군수, 정일운 임실군의회 의장, 임실교육지원청 유효선 교육장을 비롯한 내외귀빈과 참가선수 등 160여명 참석한 가운데 제7회 임실군지회장배 한궁 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한궁에 대한 기본 교육을 시작으로 12개 읍면 남·여 단체 24개 팀 선수들이 참가해 열띤 경기가 펼쳐졌다.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대회에서 남성 단체 팀 1위는 삼계면분회, 2위 지사면분회, 3위 신덕면분회가 차지하였으며, 여성 단체 팀은 1위 삼계면분회, 2위 지사면분회, 3위 덕치면분회가 각각 차지했다. /임실=전종영 기자

남원소방서, 응급환자 대응 역량 강화 최선

남원소방서가 전북 구급상황 관리센터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응급환자 대응 역량을 크게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

구급상황 관리센터는 119 신고 접수부터 환자 상태 분석, 응급처치 지도, 이송 병원 선정까지 종합적인 상황 관리를 전담하는 핵심 기관으로, 신속한 의료 지도와 병원 수용 여부 파악 덕분에, 현장 구급대원들은 환자 처치에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최근 도입된 ‘119구급 스마트시스템’은 환자 정보를 기반으로 의료기관과 실시간으로 소통해 최적의 이송 병원을 선정함으로써, 병원 간 쏠림 현상을 막고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중증환자 발생 시에는 구급지도의사의 전문 의료 지도를 통해 병원 이송 전 응급처치의 질을 높이고 있으며, 대형 재난 상황에서도 통합 지휘 및 조정 역할을 훌륭히 수행 중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소방서, 공동주택 화재 예방 세대점검 방법 안내

순창소방서는 공동주택 화재 예방과 입주인 안전 확보를 위해 자체점검 과정에서 실시하는 세대점검의 중요성을 알리고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공동주택은 2년 이내 모든 세대를 대상으로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세대점검은 각 세대의 소방시설 상태를 확인하고 화재 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다.

순창소방서 관계자는 “공동주택 화재는 이웃 전체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세대점검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입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시작인 만큼 자체점검에 적극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창=이왕일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고스란히 남아있는 백제 장인의 숨결

전주매일 캠페인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익산 왕궁리 유적에 있는 오층석탑이다. 1965년부터 1966년에 보수를 위한 해체와 복원을 실시하였고 이때 흙 속에 묻혀 있던 돌로 만든 기단부가 발견되었다. 1층 옥개석 상면과 기단부 심조석 상면에 마련된 사리공에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 ‘국보 제123호’를 수습하였다. 창건에 대한 문헌 기록이 없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의 건립 연대는 백제 시대에서 통일신라, 고려 시대 초까지 논란이 다양하다. 1989년부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을 중심으로 본격적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백제 시대에 경영되었던 궁성이 폐기되자 궁성 터에 탑·금당·강당을 남북 일직선으로 배치한 백제의 전형적인 1탑 1금당식 사찰을 지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래 목탑이었던 것이 현재의 석탑으로 바뀌었고 백제 멸망 이후에도 법등을 계속 이어 갔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44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 1월 1일 국보 제289호로 승격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국보로 재지정되었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향토문화전자대전